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 성료

수산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단체로 도약 차기 회장에 배평암 현 회장 만장일치 선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1시 해군호텔 영빈관 1층(수정실)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도 주요사업 결과와 함께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고 차기 회장에 배평암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국어항협회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전환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정기총회에서 협회는 어촌 어항 어장을 연계한 종합발전과 수산기반 구축을 위한 최고의 공공단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총 수지 예산 규모를 지난해 예산 대비 25% 증액된 122억원으로 책정했다.

금년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 △어촌 어항 어장 정보지식기반의 확립 △어항관리의 효율화 △어촌 어항 및 연안 수역의 환경 개선 △어촌 어항의 문화 관광 진흥 △자립기반 구축 강화 등을 채택했다.

장관 치사



해양수산부

존경하는 어촌·어항 가족 여러분!

오늘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촌·어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배평암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여러분과 어촌·어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그동안 협회가 어항건설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어항·어장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어촌·어항의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 사료되며, 이번 총회가 어촌·어항 전문기관으로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협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협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서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금년 한해를 어촌어항 발전 및 협회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맡은바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어촌·어항 가족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존의 어항법을 폐지하고 '어촌·어항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지역 특성을 살려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우선 금년부터 2년동안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어촌·어항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어촌·어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양한 어항 개발 수요에 부응한 어항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존 105개 국가어항 중 미완공 24개항 잔여사업에 총 4,396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지방어항 개발에도 연평균 7백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기존의 308개항을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의 관광수요 증가에 부응한 어촌관광활성화사업으로 2011년까지 4천7백32억원을 투입하여 어촌관광 모델 24개소를 조성하고, 1994년부터 추진해 온 225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도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어촌관광 및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진력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까지 1,000사 1,000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매년 200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등 도시와 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어촌·어항 가족 여러분!

어촌·어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어촌·어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노력도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금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수산업 발전과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의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을 실현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오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정기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촌·어항인 여러분의 행운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3. 14.

해양수산부 장관 오 거 돈



◀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어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어항과 어장을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도시인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역설했다.



▲ 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배평암 회장



◀ 이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장현 차관보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어촌 어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배평암 회장을 비롯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촌어항법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수산업 발전과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의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을 실현하자”라고 강조하며 어촌어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어촌 어항 발전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어촌 어항 관계자에게 「제5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시상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제4회 자랑스런 어항인 대상 수상자

- 조남원 삼부토건 주식회사 부회장
- 이 혁 남광건설 주식회사 회장

▲감사패 수여자

- 최행근 링크마린 주식회사 사장
- 최대윤 합자회사 보령환경 사장



▲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 완도)이 총회 축하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 총회를 마치고 난 후 협회 본부 임직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졌다.